

고집 꺾은 애플, 화면 확대로 시장 공략

배일 빛은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최대 5.5인치 대화면·1920×1080해상도
아이폰6 두께 6.9mm·아이폰6+ 7.1mm
100만원대 예상…10월말 국내 구입 가능

애플이 변했다. 그동안 줄곧 고집해왔던 '한손에 쥐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작은 화면'을 포기했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새 스마트폰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를 공개했다. 그 중 '아이폰6플러스'는 5.5인치 대화면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애플은 지난 해 중저가 모델 '아이폰5C'를 내놓는 등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경쟁 부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인치대 화면 첫 적용

애플이 공개한 새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제품보다 화면이 커졌다는 점이다. 아이폰6도 4.7인치로 기존 제품보다 커졌고, 아이폰6플러스의 경우엔 5.5인치 디스플레이를 달았다. 아이폰6의 화면 해상도는 1334×750이고, 인치당 픽셀수는 326ppi다. 아이폰6플러스는 1920×1080의 해상도에 401ppi를 적용했다. 특히 화면이 커지면서 가로모드까지 지원한다. 반면 두께는 아이폰6가 6.9mm, 아이폰6플러스가 7.1mm로 얇아졌다.

이 밖에도 두 제품 모두 애플이 설계한 A8 프로세서(AP)를 탑재했고, 더욱 빠른 오토포커스 기능을 적용한 카메라를 달았다. 상점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애플페이'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두 제품은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서 19일 발매될 예정이다. 가격은 미국에서 2년 약정 기준 아이폰6는 16GB 199달러, 64GB 299달러, 128GB 399달러다. 아이폰6플러스는 각



애플이 화면이 커진 새 스마트폰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를 공개하며 제품군을 다양화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새 스마트폰을 소개하고 있는 필립 앨버 마케팅 부사장.

각 299달러, 399달러, 499달러다.

아쉽게도 한국은 이번에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격 역시 미정이다. 업계에선 아이폰6가 10월 말 경 100만원선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출시 이동통신사에 KT와 SK텔레콤 외에 LG유플러스가 처음 포함됐다는 점이다.

●제품군 늘리며 경쟁부문 확대

이번 애플 신제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화면크기였다. 애플은 그동안 4인치대의 작은 화면을 고집해왔다. 한손

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화면을 터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경쟁사의 대화면 제품을 평가절하하며 고집했던 철학이기도 하다.

이했던 애플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가격을 내린 제품군을 처음 선보인 것. 올해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대화면 스마트폰까지 내놓으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는 물론 거센 추격을 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5인치대 대화면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매년 대화면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선보이며 '패블릿'(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합성어)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왔다. 애플의 대화면 제품인 아이폰6플러스는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노트4'와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4는 5.7인치 쿼드HD(2560x1440)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단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아이폰6플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애플워치’ 공개…손목 위 스마트전쟁 불꽃

“손목 위 스마트 경쟁 뜨겁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베일을 벗었다. 이름은 저작권 문제로 ‘아이워치’가 아닌 ‘애플워치’로 결정됐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신제품 애플워치를 공개했다.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공개한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연결해 걸려온 전화를 받고, 헬스케어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입는) 스마트 기기다. 터치스크린에 사파이어 글래스를 입힌 것이 특징. 또 디지털 다이얼(용두)을 달았으며 가죽과 금속 등 다양한 재질의 시계줄로 교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기본형과 스포츠형, 에디션형 등 총 3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 초 구입 가능할 전망이다. 가격은 349달러다.

애플이 애플워치를 공개하면서 손목형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시장이 더욱 뜨겁게 달

아오를 전망이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로 대변되는 웨어러블 기기 부문에선 후발주자에 속한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이미 1년 전부터 ‘갤럭시기어’ 등을 내놓으면서 새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엔 구글이 웨어러블 전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선보였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모토로라 등 안드로이드 진영 기기 제조사들이 일제히 관련 신제품을 내놔다. 이번 애플워치의 등장은 이러한 시계형 스마트 기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근 기자



애플워치



한류관광의 새 명소가 된 경기도 가평 뽀띠 프랑스. 사진제공 | 뽀띠 프랑스

‘별그대’ 최대 수혜자는 뽀띠 프랑스

드라마 방영 이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6배 늘어

2월에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진하게 남아있는 한류 드라마의 히트작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종화권 전역을 강타한 ‘별그대 신드롬’ 덕분에 드라마에 등장한 의상과 한국문화가 덩달아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별그대’ 후광 효과로 인한 수혜자는 ‘천송이 코트’와 ‘치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극중 도민준과 천송이가 동화처럼 멋진 공중 부양 키스를 나눈 그 곳, 경기도 가평의 프랑스 테마공간 ‘뽀띠 프랑스(Petite France)’도 드라마 방영 이후 한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다.

청평대에서 남이섬 방향 호숫가에 위치한 뽀띠 프랑스는 올해로 개관 6주년을 맞았다. 드라마 방영 이후 뽀띠 프랑스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은 전년 대비 600%나 늘었다. 매월 평균 7만~8만명이 찾고 있어 연말이면 70만명을 넘고, 누적 방문객도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 대규모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의 한 해 외국인 방문객을 웃도는 수치다.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할인쿠폰 다운로드도 관광지, 화장품, 면세점을 포함한 전체 업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크게 늘어난 외국인 방문객의 대부분은 중화권 관광객이다. 드라마에서 도민준과 천송이가 보여준 로맨틱한 키스신을 떠올리며 뽀띠 프랑스를 찾는다. 키스신을 촬영한 곳에 마련한 포토존 등에서 저녁 무렵에 예쁜 조명이 켜진 가운데 ‘셀카’ 등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이곳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뽀띠 프랑스 한홍섭 회장은 “전에는 주말에 가족 동반으로 오는 내국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일에도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중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곳을 찾는 다”며 “20여 년 전 프랑스 여행 중 영감을 받아 꾸준히 이곳을 가꾸어 온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관 6주년 맞아 유럽 인형극 상설 공연 ‘퍼펫 씨어터’ 오픈

뽀띠 프랑스는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발판으로 한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기 위해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뽀띠 프랑스는 유럽의 전통 인형극과 각국의 희극 오르골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오르골 하우스, 생텍쥐페리 재단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어린왕자’ 및 생텍쥐페리의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개관 6주년을 맞아 프랑스 리옹의 인형극장을 모델로 한 ‘퍼펫 씨어터’를 오픈했다. 300여 평 공간에 280석 규모로 유럽 고성을 떠오르게 하는 외양이 인상적이다. 뽀띠 프랑스는 ‘퍼펫 씨어터’ 개관을 기념해 현재 마리오네트극 ‘브레멘 음악대’와 유럽동화인형극 ‘적과 콩나무’를 상설 공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마리오네트 인형들과 새롭게 추가된 마리오네트 인형들을 모아 ‘마리오네트 전시관’도 새로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라임 나무로 된 마리오네트 인형’, ‘나무로 만든 핸드메이드 손인형’ 등의 희귀 작품을 볼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www.198282.net

내 여인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최상의 女人 최고의 즐거움!

따뜻한 내 아내~ **웅녀 핫나경!**

1위

차별화된
부동의 1위제품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이며 폴리우레탄
재질로 무독성이고
견고하며 촉감부터
다릅니다.

※ 저가품은 중국산입니다!
독신자, 동성애, 가짜기 아베, 해외 근로자
외로운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내 여인 인형! 사은품 증정~

제품문의 : 1577-4101 / 010-8952-4114

NAVER 핫나경

음경파로 고향파로!

벌떡(핫나경) 기능성 팬티

2014 신제품

32.5℃
옥(玉)+자석링

시원합니다~

男子는 아래가 시원해야 힘이 강해집니다!

벌떡팬티(기능성 신소재)를 구입시 옥링 4개를 무료증정

음경 아래가 축축하고 고개속인 남성들이 찾는 속옷!

옥(玉) + 살베 + 바이오세라믹의 조화로운 만남!

음경과 고환이 따로 분리되어 습하고 땀이 치는것을 막아주고 땀냄새 제거
등에 탁월한 도움을 주며 더 크고 단단하고 더 오랜시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속속으로 고개속인 남성들도 10대의 힘을 되찾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품문의 : 1588-4101 / 010-7102-7070

www.198282.net

남자를 위해 여자가 직접 만들었어요~

女子가 만든 엄청남

개발자
나경

평범한 주부인
나경씨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女子 매시브맨

엄청남은 크게 느껴진다고 해서 **엄청남**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女子의 속내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체는 운동을
하면 단련이 되듯이 **사용하면 힘수록 힘이 생기고 굼어지며
지구력이 생깁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휴대가 편리하며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장안에 화제입니다.

체험소설책이 없는 제품은 **엄청남**이 아닙니다.
일반 시중이나 성인용품점에는 없습니다!

"사은품(확장기)과 체험소설을 함께 드립니다"

핫나경 1588-4102 / 010-6306-7070

www.198282.net

인생을 두배로 즐겁게!
날 밤 새는 줄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소소

마성난지
구독불가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들의 심리와 감춰진 이야기!
플레이보이를 위한 지침서!

①오피스텔 와이프

②백인백색의 낙원

③명기와 명도 전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보**
①오피스텔 와이프 ②백인백색의 낙원 ③명기와 명도 전쟁
(주)글로벌 핫 출판사 / 저자 전준성(필명) 저 / 각권 15,000원(3권 45,000원)
*사은품으로③권을 더 선물해 드립니다.

- 여자의 제일 좋은 운은 여러번의 절정을 몰아다주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 제일 좋은 운이다.
- 명기로 가는 길, 명도로 가는 길, 자금 오로가조를 아시나요?
- 성공피 터지는 밤의 대통령도 사랑의 기술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 여자는 남자하기에 따라 요조숙녀처럼 지나기도 하고 화남기로 변할수도 있다.
- 여자들의 침투로 한을 품은음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자궁전쟁으로 이어진다. (본문중에서)

제품문의 : 010-6380-5877 / 010-8968-5877